

#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 Effective Ways for Acquiring Multicultural Materials in Korea

조 용 완(Yong Wan Cho)\*

### < 목 차 >

I. 서론	III. 다문화자료의 효과적 입수 방안
II. 국내의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실태 비교	1. 도서중개상 활용
1. 국내 주요 이주민 출신국가들의 정보 생산 및 유통 실태	2. 인터넷 서점과 현지 서점, 출판사 등과의 직거래
2.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 실태	3. 국제도서전 참가
3. 외국 도서관의 다문화/지역학/어문학 관련 자료입수 실태	4. 도서구입 출장여행
	5. 개별적 접촉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최근 우리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거주 이주민들의 출신국가에서 생산된 자료의 입수와 제공은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비체계적인 자료입수 방법과 해당 국가의 열악한 출판 및 유통 환경 등으로 인해 다문화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도서관들은 다문화자료의 입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의 다문화, 지역학, 어문학 관련 자료입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자료의 효과적인 입수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다문화사회, 다문화자료, 이주민, 도서관, 자료입수

###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problems of acquisition of multicultural materials published in many countries where immigrants living in Korea came from. Until these days, libraries that want to support immigrant community in S. Korea have had many difficulties in acquiring those materials because they used informal acquisition methods and mother countries of the immigrants in Korea have lower quantities and quality of book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than developed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som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 utilizing domestic vendors or book jobbers, contacting online bookstores, publishers and local bookstores in mother countries of the immigrants in Korea, attending international book fairs held in different Asian countries and taking buying trips for multicultural materials and connecting organizations and people related with multicultural materials. This study gives some benefits to libraries that are developing area studies,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ction as well as libraries that are developing multicultural collection.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Literature, Immigrant, Library, Acquisition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joyproject@empal.com)  
· 접수일: 2008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사회가 단일한 인종, 언어, 문화, 관습을 공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공중과 TV에서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영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이주민의 숫자가 115만명에 이르고 있다.

〈표 1〉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sup>1)</sup>

2008. 6. 30. 현재

구분	총체류자	구분	총체류자	구분	총체류자
중국 (한국계)	559,771 (377,616)	대만	26,113	인도	7,780
		인도네시아	25,722	캄보디아	6,691
미국	125,436	우즈베키스탄	21,421	호주	5,902
베트남	78,948	캐나다	17,676	네팔	5,530
필리핀	50,129	스리랑카	14,504	영국	4,799
태국	45,956	방글라데시	12,567	미얀마	4,041
몽골	34,470	파키스탄	10,275	독일	3,453
일본	32,544	러시아	9,986	기타	41,946
총계 1,145,660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 2007. 5. 17 법률 제8442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 3. 21 법률 제8937호)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는 각급 도서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인용 2008. 8. 10].

다문화사회 내에서 도서관들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더불어 이주민의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모국 사회와 모국 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도서관연맹격인 IFLA가 2006년 8월에 발표하고 UNESCO가 2008년 4월에 서명한 <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선언은 문화적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도서관은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하여 다언어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sup>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도 급증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나 현지의 선교사나 활동가 등을 통해 어렵사리 주요 이주민 국가의 자료를 입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민 지원 단체 소속 도서관들이 일부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도서관들은 이주민 국가의 자료를 입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주민 거주 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들도 한글교실과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대구와 창녕의 공공도서관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을 벌이거나 '다문화 가정 도서관 문화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다.<sup>3)</sup> 하지만, 민간영역과 달리, 일부를 제외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이주민 언어 자료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국내자료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도서관들 대부분이 다국어 기반의 자료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주민 언어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도서가 들어오거나 배송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등 하나같이 이주민 언어 장서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학계나 도서관 현장에서나 이주민 언어로 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개별 도서관들이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자료를 입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효과적인 다문화자료 입수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대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들이 다문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어 근간을 이루는 다문화

2) 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  
 <<http://www.ifla.org/VII/s32/pub/MulticulturalLibraryManifesto.pdf>> [cited 2008. 7. 20].  
 3) "소식," 도서관 문화, 제49권, 제8호(2008), pp.14-16.

자료, 즉 국내 주요 이주민 출신국가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앞의 <표 1>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출신국가는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등 널리 퍼져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영어권 국가와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도서의 출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이 활발하여 국내 도서관들도 직접 또는 대행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한 자료의 입수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민 출신 국가 중에서 국내 도서관들이 자료의 입수에서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일본은 제외)과 러시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의 입수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주민 출신 국가 관련 정보접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해당 국가들의 출판 상황과 인터넷 환경을 토대로 살펴보고, 이런 환경에서 국내 도서관과 외국의 도서관들은 이러한 국가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어 국내외 도서관들의 선행경험과 관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국내 도서관들이 이주민 국가 자료의 입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및 지역학, 어문학 관련 자료 입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문헌들과 홈페이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영역의 도서관의 이주민 출신국가 자료의 입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 담당자(공공도서관 2명, 민간도서관 3명)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내용은 현장에서 기록하고 면담 직후 정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자료입수라는 관점에서 어문학과 지역학 관련 학과들을 보유한 국내 대학도서관이 아시아 등지에서 출판된 자료의 입수를 위해 벌이고 있는 활동을 참고하기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 3명과 직접 대면과 전화통화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고 최근에 국내 이주민 출신국가 자료에 대한 대행업무를 시작한 국내 도서관 구매 대행사 관계자 1명과도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 II. 국내외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실태 비교

### 1. 국내 주요 이주민 출신국가들의 정보생산 및 유통 실태

국내 도서관들은 주요 이주민 출신 국가들에서 생산된 자료를 입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도서 등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도서관이나 도서관 구매 대행사 등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이들 국가의 정보생산과 유통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국가의 도서출판과 인터넷 이용 등의 환경을 국내외의 주요 통계지표를 분석하였다.

우선, 대체적으로 국내 주요 이주민들의 출신국가들은 북미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간 도서생산량을 보이는 등 출판문화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UNESCO가 발표한 세계 각 국의 연간 도서생산량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미국 68,175종(1996), 캐나다 19,900종(1996), 영국 107,263종(1996), 프랑스 34,766종(1995), 일본 56,221종(1996), 중국 100,951종(1994), 한국 30,487종(1996) 등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와 긴밀히 관련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연간 도서생산량은 태국 8,142종(1996), 베트남 5,581종(1993), 스리랑카 4,115종(1996), 미얀마 3,660종(1993), 필리핀 1,507종(1996), 우즈베키스탄 1,003종(1996), 몽골 285종(1992) 등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와 같이 통계에 나타난 이들 나라의 빈약한 출판문화는 이번 연구과정에서 면담한 여러 민간 도서관의 자료입수 실무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었다. 자료입수 방법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나라는 정말 출판량이 적고 어린이 책도 별로 없어 애를 먹었다”, “제대로 된 서점이 없어 현지인이 책 구하기가 어려웠다”, “도서상태가 우리나라 70년대와 비슷하다”, “제본 상태, 종이 질이 상당히 낮다” 등과 같이 공통된 진술을 하면서 국내 주요 이주민 출신국가들의 출판의 양과 질, 출판유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의 전체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일본 73.8%, 한국 70.7%, 대만 67.2%, 싱가포르 58.6%에 비해, 베트남 23.4%, 러시아 20.8%, 태국 20.5%, 중국 19.0%, 필리핀 15.1%, 몽골 10.7%, 인도네시아 10.5%, 스리랑카 3.7%, 방글라데시 0.3%, 미얀마 0.1% 등으로 나타났다.<sup>5)</sup> 또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PC보유), 인터넷(인터넷 이용자,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 통신(유선전화 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방송(TV 보유가구, CATV 가입가구) 등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산출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지수에서도 2007년 현재 스웨덴 1위(96점), 미국 2위(92점), 한국 3위(91점), 일본 11위(85점)인데 비해, 러시아 33위(31점), 중국 42위(13점), 태국 46위(8점), 필리핀 47위(7점), 인도네시아 49위(4점), 인도 50위(4점) 등으로 나타나 아날로그(출판)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도 정보의 생산과 유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6)</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주요 이주민의 모국은 도서 출판의 양과 인터넷 이용 정도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인쇄나 디지털 형태로 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실태가 북미나 유럽,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관들이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의 입수에 있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4)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9, <<http://www.uis.unesco.org/statsen/statistics/yearbook/cult.htm>> [cited 2008. 7. 14]. 일부 국가들은 통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 )는 각 나라마다 조사된 연도를 의미한다.

5) Internet World Stats,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3.htm>> [cited 2008. 8. 13].

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요약본(서울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p.99.

## 2.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 실태

국내에서 현재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대부분 공공도서관과 이주민을 위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다문화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도서관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그룹의 도서관 중에서 다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자료의 입수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다문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내 주요 이주민 국가의 자료를 입수하여 언어와 문학, 지역학(area study) 관련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국내 대학 도서관들의 외국 자료입수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보다 앞서 다문화 서비스나 어문학, 지역학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외국 도서관들의 경험도 여기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도서관의 다문 자료 입수와 관련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가. 공공도서관

먼저, 2007년에 진행되었던 관련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다문화 서비스의 수준도 다문화자료에 기반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한글교실과 문화교실 등에 국한되어 있다.<sup>7)</sup> 이와 같은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주요 이주민들의 언어로 된 장서를 구비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 안산시립도서관(관산도서관)

50여 국가 3만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관산도서관은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동남아 등지의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를 국내 한 도서구매 대행사로부터 구입하여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 도서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자체 도서구입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 관산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방안은 다음과 같다.<sup>8)</sup>

7) 조용완,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pp.245-269.

8) 안산시 관산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14. 오후 3시.

〈표 2〉 안산시립도서관(관산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사례

장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내장서와 영미, 일본 자료 외에 2008년 600만원을 들여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5개국 자료 540권</li> <li>• 향후 도서구입비 예산에서 1천만원 가량 투입해 총 8개국으로 확대예정</li> </ul>
입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용 자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실용 도서와 교양 도서, 그리고 한국도서 중 외국어로 번역된 도서 등으로 자료를 주문하되 최신성있는 자료들로 구성하도록 요청</li> </ul>
입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다문화자료 공급을 추진한 부천지역의 한 국내 대행사(주로 공공/대학도서관에 국내/외국서를 납품)를 통해 입수</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자료 입수방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으나 동남아권 출판사나 관계자는 거의 찾을 수 없었음</li> <li>• 국가기관인 공공도서관은 예산 집행의 제한성, 적은 인원 등으로 인해 대행사를 통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li> <li>• 사서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자료구입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기에 혼자서 다문화자료를 위해 투자할 시간도 별로 없음</li> <li>• 다문화자료 입수와 관련된 특수성과 어려움을 잘 모르는 시청의 예산부서로 인해 현지방문 구매나 출판사, 인터넷 서점 등과의 개별거래는 사실상 불가능</li> <li>• 다문화 관련 국내 대행사가 유일한 상황에서도 지역 외부의 업체여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음</li> </ul>

◆ 광양시립도서관(중앙도서관)

최근 지역 내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광양시립 중앙도서관은 올해부터 자체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다문화자료를 입수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앞의 관산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행사를 통해 다문화자료를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로, 구체적인 자료입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9)</sup>

〈표 3〉 광양시립도서관(중앙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사례

장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1250만원으로 영어, 일어 외에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3개국 870권 가량의 자료를 입수</li> <li>• 내년에도 다문화자료 추가 구입 예정</li> </ul>
입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소설)류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어린이와 성인용 자료의 비율은 5 대 5로 구입할 것을 요청</li> </ul>
입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산도서관에 납품한 국내 대행사(태국, 베트남)와 외국자료 대행사(영어, 일어, 중국어)를 통해 입수</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개별적인 자료구입은 어렵고 입찰을 통해 자료구입 계약</li> <li>• 교보문고 등 국내 주요 외국서 대행사에 문의하였지만 동남아 지역 자료는 대행하지 않았고 동남아 지역 대행사가 거의 없어 사업추진에 예외를 겪음</li> <li>• 관산도서관 등에 문의하여 대행사 정보를 얻음</li> <li>• 언어 문제로 인해 자료의 주제 적합성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대행사에 의지하고 있으며 현재 신뢰하고 있음</li> </ul>

◆ 다문화 작은도서관과 기타 공공도서관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에는 관산도서관과 별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2008년도

9) 광양시립 중앙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20. 오후 4시

국비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다문화 작은도서관”(운영예정자 : 안산시 중앙도서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안산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동 투자로 마련된 1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마련되는 이 도서관에도 상당한 양의 다문화자료가 구비될 예정이다.<sup>10)11)</sup> 이 외에도 국내 도서관매 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 등 이주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들과도 현재 주요 이주민 언어로 자료의 납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도서관과도 계속 납품에 관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비록 지금은 극히 작은 숫자이지만 향후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자료를 구비하여 서비스하는 사례는 지금보다 조금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2)</sup>

#### 나. 민간영역의 도서관

한편, 공공도서관들이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에 대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을 때, 국내에서 이주민들의 정보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 특히 모국어 정보의 접근과 이용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민간 영역이었다. 이주민을 위한 인권단체나 시민, 종교단체,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 등의 민간영역은 자발적으로 다문화 도서관을 설립하여 공공도서관보다 더 일찍 이주민 출신 국가의 언어로 된 다문화 장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3)</sup> 관련문헌을 보면, 민간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몇몇 도서관들은 모(母) 단체와 연결되었던 귀환한 이주노동자나 동남아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나 활동가들을 통해 주로 자료를 입수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문화자료와 관련된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소모적 성격의 방법들이었다.<sup>14)</sup> 하지만, 최근에 개관하였거나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민간 도서관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더해 조금 더 진일보한 체계적인 입수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계획 확정>, 2008. 4. 17.

11) 경기도 부천 도서관매 대행사 A문고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14. 오후 5시.

12) 경기도 부천 도서관매 대행사 A문고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14. 오후 5시.

13) 다문화자료 기반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NGO는 공공도서관에 영어, 일어 외에 다문화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책날개를 단 아시아>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국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귀국하면서 구입한 현지 도서를 기증받거나 시민들로부터 소정의 아시아 도서 구입비를 기부받아 주로 민간 영역의 다문화 도서관에 기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이 아시아 도서를 구비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UN 아동기금 측, 유니세프는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의 '지구촌 그림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그 첫 사업으로 <창작과 비평>사와 함께 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창작그림책 『넉 점 반』의 '다국어판'(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등. 캄보디아어는 예정)을 발간하여 필요한 곳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책읽기도 ‘다문화 시대’”,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13일.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fund.org>> [인용 2008. 8. 14].

14) 조용완, 앞의 논문, 245-269쪽.



◆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설 국제 어린이 도서관

부산지역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모국어 자료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어머니 나라 언어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국제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여 한국어 도서와 다문화자료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내 한 기업의 후원으로 다문화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해 노력하였다.<sup>15)</sup>

<표 4> 국제 어린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사례

장서 구성	• 한국 아동도서 4500 여권과 영어, 일어 외에 태국,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등 외국 아동도서 3600여권 등
입수 지침	• 다양한 어린이 도서, 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교과서, 유명 어린이/청소년 소설 번역서, 사전 등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
입수 방법	•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직원과 우연히 연결 → 그 직원이 인권업무로 알고 있던 동남아 지역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부산시 국제협력과(해외 과결직원) 등에 개인적으로 구입을 부탁한 후 송금 →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 내 출판사, 서점 등에서 자국 도서를 구입하거나 이 도서관과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 → 국내로 도서와 영수증 등을 배송 • 러시아의 경우, 청소년회관 직원 → 러시아 연수경험이 있는 봉사자 → 연해주 한인회 → “보따리 무역상”을 거쳐 자료입수 • 중국의 경우, 학부모가 도서리스트 작성 → 부산 영사관 방문 → 상해 공무원(공산당 간부) 연결로 만족할 만한 자료입수
비고	• 먼저 아시아 각 국 대사관에 도서후원 협조요청과 도서구입의뢰 협조요청을 했으나 거의 도움 받지 못함 • 일부 국가의 경우, 입금액수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와 해당 국가출신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불받음 • 현지에서 도서구입을 위한 교통비와 잡비, 국내운송료, 구입 상황 점검과 환불요청을 위한 국제전화비용 등 부대비용이 상당히 소모 • 몇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르는 외국인에 의존하므로 입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부실한 자료입수 우려(의뢰인이 서점에서 ‘돈만큼 달라’ 요청해 서점 재고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와 예상보다 적은 도서가 도착할 우려가 있음

◆ 느티나무 도서관과 한국 CLC(Christian Life Community) 부설 이주노동자센터의 작은 느티나무 문고

2007년 4월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로 활동해오던 이 두 단체는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이주노동자센터 내에 <작은 느티나무 문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느티나무 도서관에도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해, 그리고 한국 어린이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자료 코너를 설치하였다. 자료의 선정과 구입은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주관하였는데 어린이 도서는 복본으로 구입하여 느티나무 도서관과 문고로, 성인 이주민용 도서는 문고로 보내 서비스에 활용하였다. 이 두 도서관과 문고에 필요한 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해 담당자는 초기의 민간 도서관들이 보여준 것에서 좀 더 발전한 방법들을 모색하

15) 국제어린이도서관 담당자와의 면담, 2008. 7. 26, 오전 11시, 2008. 8. 13, 오전 11시, 국제어린이도서관.

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6)</sup>

〈표 5〉 느티나무 도서관과 작은 느티나무 문고의 다문화자료 입수사례

장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C 센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룹인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에서 생산된 자료를 입수</li> <li>• 한국어로 된 그림책과 영어로 된 한국 그림책</li> </ul>
입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의 언어로 된 어린이 도서를 주로 구입하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문학, 종교, 역사, 과학 등 여러 주제에 걸쳐 고루 구입해 줄 것을 요구</li> </ul>
입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경험한 민간도서관을 방문하여 구입방법에 대한 문의와 기 구입된 자료 리스트 복사하여 활용</li> <li>• 베트남의 경우, 대사관 직원이 알려준 인터넷 서점에 메일로 접속하여 베스트셀러 등의 리스트 입수, CLC 이주노동자의 검토와 선정을 거쳐 주문. 다행히 업체가 서울국제전에 참가해 직접 검수하고 카드 결제함</li> <li>• 베트남어의 경우, 한국외대 도서관, 민간도서관(부천 꼬마도서관)에서 자료목록 입수해 CLC 이주노동자의 검토 후 외대 자료는 학술성격이 강해 선정안함</li> <li>• 몽골의 경우, CLC 회원인 결혼이주여성 → 몽골의 친구(몽골 서점 연결)와 한·몽 교류진흥협회의 몽골 직원(주문 시 번역도움) → 몽골 서점을 통해 주문 및 입수</li> <li>• 스리랑카의 경우, 모국귀환 이주노동자 → 공공도서관(수백권 정도의 소장자료 일부 목록을 입수) → CLC 스리랑카 노동자 모임(문고측의 주제균형 요구에 따라 주문리스트 선정) → 모국귀환 이주노동자(여러 서점을 돌며 자료구입 후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입수</li> <li>• 네팔의 경우, 꼬마도서관의 소장자료 목록 복사 → CLC 이주노동자(문고측의 주제균형 요구에 따라 주문리스트 선정) → 모국귀환 이주노동자(여러 서점을 돌며 자료구입 후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입수</li> <li>• CLC 작은 느티나무문고는 &lt;아름다운 재단&gt;이 캠페인을 통해 입수한 다문화자료를 일부 지원받음</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각 국 대사관에 도서구입과 도서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으나 거의 도움 받지 못함(베트남 대사관 직원의 개인적 도움은 받음)</li> <li>• 일부 국가 한인회, 국제협력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천공항공사 등 다양한 지원가능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별 도움 받지 못함</li> <li>• 국제우송료가 실제 도서구입비와 비슷하거나 더 나올 정도로 부담(예산 문제로 현지 대리인에 수고비는 없이 교통비만 지급)</li> <li>• 한·몽 교류진흥협회를 통해 현지 신문과 잡지에 대한 중개 가능성 확인</li> <li>• 언어의 문제로 인해 검수의 어려움</li> <li>• 과거 민간 도서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li> </ul>

◆ 푸른시민연대의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2008년 7월 국내 기업인 STX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달라고 3억원을 전달하였는데, 이 기부금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사용되며 도서관의 운영은 국내 이주민 지원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푸른 시민연대>가 담당하게 된다.<sup>17)</sup> 푸른 시민연대는 2008년 9월말 도서관 개관에 대비하며 현재 다문화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sup>18)19)</sup>

16) 느티나무도서관 전 담당자와의 면담, 2008. 8. 16. 오후 2시, 부산시 사하구 한 커피숍.

17) "STX '다문화어린이도서관' 건립," 내일신문, 2008년 7월 3일.

18) 푸른 시민연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14. 오후 4시.

19) "책읽기도 '다문화 시대',"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13일.

〈표 6〉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사례

장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결혼이민자의 수가 많은 국가 10개를 뽑아 각 400권씩 어린이 책 4천권과 한글 어린이 책 4천권 등 8천권을 갖출 예정</li> </ul>
입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li> </ul>
입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자료를 이미 입수한 민간영역의 도서관들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도서관들의 거래업체와 입수자료 리스트에 대한 입수</li> <li>• 출판협회의 지인을 통해 주요 이주민 국가의 출판협회에 메일로 협조요청 중</li> <li>• 국제협력단의 지인을 통해 해외 거주 자원봉사자에 자료구입 협조요청 중</li> <li>• 귀환 이주노동자와 파견되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협조요청 중</li> <li>• 최근 다문화자료의 국내 대행사와 접촉하여 추진여부 타진 중</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 국가의 출판협회에서는 신속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음.</li> <li>• 국제협력단에서는 한국 내 기관과 단체에 대한 협조는 불가능함</li> <li>• 과거 민간 도서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li> </ul>

다. 대학도서관(어문학 및 지역학 자료입수)

공공도서관이나 민간 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자료입수와 관련해 대학의 외국 어문학이나 지역학 관련 자료의 입수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영역에서는 외국자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부 어문학이나 지역학 관련 자료는 입수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러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언어와 문학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해당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을 위해 해당언어로 된 자료들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이 외국어자료, 특히 자료입수가 쉽지 않은 국가의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담당자들과 면담한 결과, 대학도서관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 자료들은 국내 대행사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자료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나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비영어권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의 입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문학과 지역학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A 대학교 도서관(사립대)

이 도서관의 담당자는 영어권이나 중국어, 일본어 자료는 국내 대행사를 통해 입수하고 있으나 동남아 관련 학과나 러시아 등의 학과에서 필요한 자료는 국내 대행사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다른 대안도 사실상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분야 자료의 입수는 관련 학과 교수들이 방학기간동안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도서관을 대신해 필요한 자료들을 우선 자비로 구입하고 도서관에 구입한 자료와 비용관련 서류를 넘겨주면 도서관은 도서구입비에서 후불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20)</sup>

20) A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8. 1. 10. 오후 4시.

◆ 어문학과 지역학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B 대학교 도서관(사립대)

이 도서관은 영어권, 중국어, 일본어 자료 외에 러시아어 자료와 기타 유럽자료들도 국내 대행사를 통해 입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어 자료는 현지 대행사와 연결되어 메일로 자료 리스트 등을 입수하기도 하였는데, 담당자는 이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타 동남아 지역관련 자료는 앞의 도서관이 하고 있는 방식처럼 학과 교수나 조교들이 현지에서 자료를 구입해 오면 영수증과 함께 받아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sup>21)</sup>

◆ 어문학과 지역학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C 대학교 도서관(국립대)

이 도서관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자료는 국내 대행사를 통해 별 문제없이 입수하고 있으나,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비영어권 유럽지역의 자료구입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담당자는 일부 러시아어 자료의 경우, 외국서 대행사를 통해 간혹 입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영어권 국가에서 러시아어 자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학과 교수들의 현지방문을 통한 자료구입과 후불 정산 방식의 경우, 국가기관인 국립대의 특성상 불가능하여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sup>22)</sup>

이상에서 국내 도서관들의 다문화자료와 어문학, 지역학 자료의 입수실태를 살펴보았다. 관련연구를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과 민간영역의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방법은 귀환한 이주노동자나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들과 연결하여 도서를 입수하는 낮은 단계의 입수방법에 국한되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시도는 비록 그 사례 수는 적지만 과거에 비해 비체계적인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제법 다양하고 진전된 자료입수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 후발 도서관과 사서들의 선행경험에 대한 학습의 결과이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다문화자료 대행사가 출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대학도서관의 지역학, 어문학 자료의 입수방법도 공공도서관이나 민간도서관에 비해 그다지 발전된 형태의 자료입수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에 대행사가 많고 입수하기 비교적 쉬운 영어, 일어, 중국어 자료는 입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지역과 동남아 지역 국가의 자료는 일부 대행사를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교수들의 현지 방문시 구입과 후불 정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내의 각급 도서관들이 다문화자료 등의 입수를 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아직 우리사회 내에서 이주민 집단이나 그와 관련된 학문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적고,

21) B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14. 오후 3시 30분.

22) C대학도서관 담당자와의 면담, 2008. 8. 7. 오후 12시 30분, 부산시 금정구 한 식당.

이들의 거주지가 공단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공공도서관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이주민 집단의 출신국가가 다양하고 무엇보다 각 나라에도 사용되는 언어도 다양하며, 이들 나라의 도서출판과 유통 관련 문화와 체계가 아직 뒤쳐져 있기 때문에 자료의 선정과 입수시도가 상당히 힘겨운 일이 된다. 셋째, 아직 국내 도서관 사서들의 관심이 아직 미약하고 자료입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 못하였다. 넷째, 국내 도서관 당 사서수가 부족하고 민간도서관은 활동가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서나 전담직원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료입수를 위한 다양한 연구나 시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다섯째, 국내의 외국서대행사들은 대부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자료에만 국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한 곳의 다문화자료 관련 대행사가 나타났기에 아직 많은 도서관들이 존재여부조차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여섯째, 국가기관인 공공도서관과 국립대학 도서관은 민간 영역의 도서관이나 사립대학 도서관에 비해 예산 사용이 경직되어 있고 예산관련 부서나 담당자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사가 없으면 불확실성이 높은 다문화자료의 입수에 쉽게 뛰어 들 수 없는 상황이다.

### 3. 외국 도서관의 다문화/지역학/어문학 관련 자료입수 실태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의 도서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부터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왔고, 학문적으로도 제3세계권이나 동유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들 나라의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서비스의 제공, 대학도서관 등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 문학, 지역학 관련학문을 위한 자료의 제공과 같은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도서관들도 남미, 동남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의 입수가 순조롭고 원활했던 것은 아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체적으로 제3세계권이나 동유럽, 구 소련 국가들은 북미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간 도서생산량을 보이는 등 출판문화가 비교적 취약한 편으로 나타났다.<sup>23)</sup> 특히 위 지역 내 상당수의 국가들은 오랜 기간 강대국의 식민지, 독재, 내전, 쿠데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당해왔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많은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를 입수하는데 북미와 유럽 등지의 많은 도서관들이 애로를 경험하고 있었다.<sup>24)</sup>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 사회의 이주민들에

23) 동구권, 구 소련 국가, 아프리카, 남미지역의 연간출판량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슬로바키아 3,800종(1996), 크로아티아 1,718종(1996), 우크라이나 6,225종(1995), 에스토니아 2,628종(1996), 앙골라 22종(1995), 케냐 300종(1994), 우간다 288종(1996), 에콰도르 12종(1995), 수리남 47종(1996) 등으로 나타났다.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9, <<http://www.uis.unesco.org/statsen/statistics/yearbook/cult.htm>> [cited 2008. 7. 14].

계 모국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 도서관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만여 명 인구의 54%가 이민자들로 구성된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Richmond Public Library는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심은 이민자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자료입수에 있다. 7만권 이상의 중국어 자료가 있고 그 외 편잡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힌디어, 우르두어 등 영어를 제외한 8개 국어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중국어 자료는 지역 내 2개의 중국어 서점과의 계속 주문(standing order) 방식으로 입수되고 있는데, 매월 대중 소설과 어린이 도서가 주로 공급되며, 음악 CD와 영화 DVD도 지역 내에서 주문된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중국인 사서의 선정과정을 거쳐 비소설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예술가 겸 사업가로부터 수천권의 자료를 매년 기증받고 있다.<sup>25)</sup>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민자 출신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Toronto Public Library는 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해 주로 지역의 대행사, 서점, 도서유통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언어자료에 대해서는 대행사와 선택적 일괄주문방식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어 자료 구매를 위해 담당자가 스페인어 자료입수를 위해 멕시코의 Guadalajara Book Fair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sup>26)27)</sup>

미국 뉴욕시의 Queensborough Public Library는 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해 주로 지역의 대행사와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자료의 선정에 참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러 국제도서전에 참여하여 하고 있는데, 실제 구입은 환율, 관세, 운송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서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sup>28)</sup>

미국 시애틀시의 Seattle Public Library는 다문화자료 입수와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다른 도서관을 통해 대행사 정보등 다문화자료입수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영어만 사용가능한 미국 사서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다문화자료들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OCLC Language Set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된 어린이 자료와 성인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sup>29)</sup>

북유럽 지역의 덴마크 Central Library for Immigrant Literature와 Copenhagen Public Libraries가 1998년부터 공동으로 10개국 언어의 자료를 공동으로 입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4) Jieyin Feng, "International Book Fairs an Intercultural Catalysts for Libraries and Publishers : Frankfurt, Guadalajara, Zimbabwe and Beyond," *Library Acquisitions : Practice and Theory*, Vol.23, No.1(1998), pp.104-106.

25) Wendy Jang, "Multilingual Services at Richmond Public Library," *Feliciter*, Vol.49, Issue 3(2003), pp.158-160.

26) Jens Ingemann Larsen, Deborah L. Jacobs, and Ton van Vlimmeren, "Cultural Diversity : How Public Libraries Can Serve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ALIA 2004, Challenging Ideas, December 2003. <<http://conferences.alia.org.au/alia2004/pdfs/vlimmeren.t.paper.pdf>> [cited 2008. 8. 21].

27) Michael Rogers, "Serving up World Language," *Library Journal*, Vol.128 Issue 11(2003), pp.128-130.

28) Jens Ingemann Larsen, Deborah L. Jacobs, and Ton van Vlimmeren, op.cit.

29) *Ibid.*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자료는 물론이고 카세트와 CD 등도 함께 수집하고 있는데, 덴마크 내 다른 공공도서관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sup>30)31)</sup>

이어서 다문화자료입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외국 대학도서관들의 지역학과 어문학 관련 자료 입수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도서관은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의 문학과 언어 관련 자료의 원활한 입수를 위해 스페인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신간정보와 리뷰정보, ALA 발간 서지자료 등을 선정도구로 활용하고, 관련 학과 교수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 자료와 라틴어 자료에 대해 두 곳의 도서관 대행업체를 통해 선택적(또는 조건부) 일괄주문방식(approval plan)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다.<sup>32)</sup>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도서관은 남아시아 지역학 지원을 위해 1800년대 초반부터 서구 언어와 남아시아 언어들로 된 남아시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왔는데,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된다. 남아시아 자료의 주요 입수방법은 미 의회도서관(LC) 주관의 협력 자료입수 방법, 주요 대행사를 통한 선택적 일괄주문, 계속주문방식(standing order)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주문을 위해 출판사의 출판목록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sup>33)</sup>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Hamilton Library는 1935년부터 관련학문 지원을 위해 South Asia Collection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국가의 언어로 된 자료와 이들 나라에 관한 기술된 영어나 유럽 지역 언어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자료입수는 크게 미 의회도서관이 주관하는 “The South Asia Cooperative Acquisitions Program”이라는 협력체를 통한 방법과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남아시아 관련 학술자료들을 도서관 구매 중개업체를 통해 선택적 일괄주문으로 입수하는 “The Blackwell Approval Plans”를 통한 방법, 학술회의 자료, 학위논문을 비롯한 회색문헌들을 개별 주문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sup>34)</sup>

한편, 미국의 여러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들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국제도서전 참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 어문학, 지역학 관련 자료의 입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LA는 여러 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도서관 사서들

30) *Ibid.*

31) Michael Rogers, *op.cit.*, pp.128-130.

32) Roberta F. Astroff, “Revitalizing a Foreign Literature Collection,” *Collection Building*, Vol.20, No. 1(2001), pp.11-17.

33) University of Pennsylvania Home page, <<http://www.library.upenn.edu/collections/policies/soasian.html>> [cited 2008. 8. 20].

34)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me page, <<http://www.hawaii.edu/asiaref/sasia/about.htm>> [cited 2008. 1. 29].

에게 국제도서전 참관에 있어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Free Pa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LA는 멕시코에서 열리는 스페인어 출판물에 관한 세계 최대의 국제도서전인 'Guadalajara International Book Fair(Feria Internacional de Libro, FIL)'측과 협력하여 2008년 대회까지 총 9번의 'ALA-FIL Free Pa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페인어 자료 담당자나 스페인어 사용 커뮤니티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ALA 개인회원 사서들을 대상으로 매년 150명 정도를 선발하여 숙박과 식사, 국제도서전 등록 편의제공 및 항공비 일부 보조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sup>35)36)</sup> 또한 ALA는 Hong Kong Book Fair(HKBF)와 공동으로 중국어와 동아시아 관련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ALA 개인회원 사서들의 HKBF 참관을 지원하는 'Hong Kong Book Fair Free Pass Program for Librarians'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에게 무료숙박, 국제도서전 무료 등록, 연회 참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sup>37)38)</sup> 이 외에도 ALA는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국제도서전인 'Zimbabwe International Book Fair(ZIBF)'에도 ZIBF측과 공동으로 'Free Pass Program'을 통해 10명의 미국 사서들을 참여시켰는데, ZIBF측에서 3일간의 숙박과 조식, ALA측에서 200달러를 항공비로 참가사서들에게 지원하였다.<sup>39)40)</sup>

이상에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이 다문화, 어문학, 지역학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언어권에서 생산된 자료의 입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도서관들은 서점이나 대형사, 도서유통업체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선정도구의 활용, 국제도서전 참가, 기증, 그리고 LC, ALA나 OCLC 등이 제공하는 협력기반의 자료입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 다문화 등 입수하기 어려운 외국 자료를 구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이고 다양하였는데, 이는 이들 도서관이 이주민이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미나 유럽지역 도서관들의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다문화, 어문학, 지역학 관련 자료입수 방법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는 이민의 역사가 긴 편인데, 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과 사서들 역시 다문화와 외국자료 입수에 대한 이해가 깊은 편이다. 둘째, 이들 국가는 출판문화와 유통체계가 상당히 발전해 있어 외국 자료의

35) ALA Home page, <<http://www.ala.org/ala/iro/iroactivities/guadalajarabook.cfm>> [cited 2008. 7. 10].

36) Elisa F. Topper, "South of the border: an American librarian attends the Guadalajara Book Fair 2006," *New Library World*, Vol.108 No.3/4(2007), pp.183-185.

37) ALA Home page, <<http://www.ala.org/ala/iro/awardsactivities/hongkongbookfair.cfm>> [cited 2008. 7. 10].

38) Yurong Yang Atwill & C. David Hickey, "Area studies librarians and international book fairs : the Hong Kong Book Fair experienc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Vol.27 Issue 1(2003), pp.97-105.

39) Barbara J. Ford, "International Partnerships : Books and Librarians," *American Libraries*, Vol.29, Issue 2(1998), p.30.

40) "Ten Free Passes Offered for Zimbabwe Book Fair," *American Libraries*, Vol.30 Issue 2(1999), p.5.



입수와 유통을 담당하는 다양한 대행사와 서점 등이 존재하고 있어 선택적 일괄주문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들이 관련 자료의 입수에 수월하게 임할 수 있다. 셋째, 사서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자료입수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출판사나 유통업체의 도서목록, 전문 서평잡지 등의 생산, 유통, 입수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넷째, 이들 나라의 도서관들은 사서들의 다문화, 지역학, 어문학 관련 자료입수를 위한 연구와 국제도서전 및 현지 자료입수 방문 등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sup>41)</sup> 다섯째, 국가도서관과 국가 도서관협회, 도서관 협력체 등이 개별 도서관과 사서들의 자료입수 활동을 주도하거나 지원하며, 외국자료 입수와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후원도 활발한 편이다.<sup>42)43)</sup>

### Ⅲ. 다문화자료의 효과적 입수 방안

앞의 2장에서 국내 도서관과 외국 도서관들이 다문화 관련(지역학, 어문학 포함) 자료의 입수를 위해 취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2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국내에서 다문화자료의 입수를 위해 준비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과거와 달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도서중개상 활용

도서관의 일반적인 외국자료 입수방법은 국내서점이나 국내외 도서중개상을 통하거나 외국 소재 출판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직거래의 경우, 자료선정, 가격조사, 주문 리스트 작성, 발주, 송금, 검수 등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서인력의 부족, 언어소통 문제, 거래처 분산으로 인

41) 미국 Indiana University와 대학도서관은 소속 사서의 인도학 관련 자료입수를 위한 기금지원, 인도 관련 서지검색을 위한 인력지원, 인도지역 자료입수 여행비용 지원 등에 적극적이어서 대학의 인도학 관련 자료입수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Andrea Singer, "Providing Access to Sources for India Studies at Indiana University Libraries : Piecing a Quilt," *The Acquisitions Librarian*, No.29(2003), pp.51-61.

42)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은 1999년 한해에 외국어 장서 확충(일부는 다른 사업 포함)을 위해 Denver Public Library와 Enoch Pratt Free Library, Indianapolis-Marion County Public Library Foundation, Miami-Dade Public Library System 등에 각각 1년간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주민 가정과 학생 관련 서비스를 위해 Minneapolis Public Library에 2년간 50만 달러를, 그리고 히스패닉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 Houston Public Library에 26개월간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Home page, <<http://www.carnegie.org/sub/pubs/newsline/june99.html>> [cited 2008. 8. 20].

43) West Viginia State College 도서관은 United Negro College Fund와 U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부터 25만 달러를 지원받아 아프리카 Benin의 National University of Benin과 함께 상호간 사서 교환 방문, 자료교환, Benin에서 생산된 자료 입수 등의 활동을 벌인 바 있다. John M. Kistler, "Special Acquisitions : Collecting African Materials," *The Acquisitions Librarian*, No.29(2003), pp.31-50.

한 업무량 폭증, 통신비용 증가, 우편사고 등 부가업무 증가 문제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에서는 국내외 대행사를 통해 외국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44)45)</sup> 외국자료의 주문방식은 도서관 주도로 주문리스트를 작성해 출판사나 도서중개상, 서점 등에 발주하는 '확정주문(firm order)'과 도서중개상이나 출판사 등이 자료를 선정하여 도서관에 일괄 납품하는 'gathering plan'으로 구분된다. 'gathering plan'은 다시 도서관이 총서, 시리즈 형태의 도서, 특정 저자나 출판사의 출판물 등에 대해 도서관이 변경통지할 때까지 도서중개상이나 출판사가 계속 공급하는 형태인 '계속주문방식(standing order)', 도서관이 자료의 주제, 수준, 형식, 가격, 언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조건을 명시한 장서 프로파일에 따라 도서중개상이나 출판사가 구체적 자료들을 선정하여 납품하고 도서관은 일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에 대해 반납권을 가지는 선택적 일괄주문방식, 그리고 선택적 일괄주문방식과 유사하지만 장서프로파일보다 포괄범위가 덜 구체적이며 도서관의 반납권이 일반적으로 없는 '일괄주문방식(blanket order)' 등으로 구분된다.<sup>46)47)</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주요 이주민 출신국가들의 출판문화와 유통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내에 이들 국가의 서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고 다양한 국가별 언어 문제, 도서관의 언어전문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해 개별 도서관이 주도하는 확정주문을 채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외국의 도서관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다문화나 어문학, 지역학 등을 위해 자국 내외의 도서중개상과 서점, 현지 출판사 등과 주로 선택적 일괄주문방식을 중심으로 한 'gathering plan'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해왔는데, 이는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선택적 일괄주문 등의 방식이 자국 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료를 입수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국내 도서관들이 다문화자료의 입수과정에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택적 일괄주문 등 'gathering plan'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다문화 환경에 적합한 대행사가 존재해야 한다. 2007년까지는 일반적인 외국자료를 담당하는 대행사 외에 국내 다문화 환경에 적합한 대행사가 전혀 없었으나 2008년 초 처음 등장하였다.<sup>48)</sup> 이로 인해 과거 귀환 이주노동자나 지인 등을 통해 많은 위험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비체계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야 했던 상황

44) 송영희 등, 장서개발론(서울 : 구미무역(주) 출판부, 1992), pp.182-185.

45) 윤희윤, 장서관리론(대구 : 태일사, 1999), pp.166-171.

46) 상계서.

47) 서혜란, "선택적 일괄주문에 관한 소고," 국회도서관보, 제27권, 3호(1990), pp.56-57.

48) 경기도 부천에 기반을 둔 이 대행사는 지금까지 국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국내도서와 외국도서를 납품해 왔는데, 2008년 초 다른 외국도서 대행사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동남아 지역과 몽골, 러시아 등에서 출판되는 자료의 국내 대행업무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들 국가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언어문제, 출판과 도서 인프라의 취약성, 전산화 미비, 문화적 차이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현지의 서점, 중개상 등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현재 4곳 정도의 공공도서관에 납품을 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민간 도서관과도 접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도서구매 대행사 A문고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2008. 8. 14.

은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의 공공도서관 사서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기관이어서 현실적으로 자료의 입수를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대행사에 통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대학 도서관 등은 관련업무 처리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현재 확인된 바로는 1곳이 국내 다문화자료의 입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향후 국내 도서관들 중 다문화자료(이들 지역에 관한 지역학, 어문학 자료 포함)의 입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기존 외국자료 대행사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수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행사를 통해 다문화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들과 담당자들의 자료선정, 주문리스트 작성, 발주, 송금, 검수 등에 관한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된다. 둘째, 전문적인 대행사가 해외의 서점이나 출판사 등과 거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선정과 구입업무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셋째, 직거래시, 입수과정에서 문제발생하면 담당사서가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업무를 떠맡아야 하지만, 대행사를 통하면 대행사에 책임을 물으면 되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문제해결이 신속하다. 넷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입찰을 통해 처리하므로 예산집행 및 행정처리와 관련해 부담이 없다.

대행사를 통한 다문화자료의 입수에는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사전에 면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행사와 선택적 일괄주문 등 'gathering plan' 방법을 통해 다문화자료를 입수할 경우, 자료의 선정과 검수과정이 사실상 대행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서주도에 의한 장서구성과 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도서관과 사서 주도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서관들은 다문화자료와 관련해 국가별(언어별), 주 이용대상별, 주제별, 형태(도서, CD, DVD 등) 등 요구사항을 담은 장서 프로파일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대행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요 이주민 그룹 등의 요구과약을 위한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료검수 과정에 해당언어 사용가능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대행사를 거쳐 자료를 입수할 경우,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업체 수수료가 지불되므로 도서관의 지출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만일 향후 국내에 다문화자료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현지의 유통과정이 합리화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다문화자료 입수대상인 중국의 경우는 국내의 크고 작은 대행사들이 여럿 존재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일부 대행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남아와 몽골 등 국내에 필요한 다문화자료 전반을 포괄하는 업체는 현재 1곳뿐이어서 업체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선택적 일괄주문 등의 방법은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도서의 구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희망된 특정 자료입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행사에 주문리스트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인터넷 서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2. 인터넷 서점과 현지 서점, 출판사 등과의 직거래

대행사를 통해 입수할 수 없는 다문화자료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점이나 출판사를 통한 직거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내외에 인터넷 서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서점을 통한 도서 등의 주문과 입수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와 관련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도 아직 국내와 같이 왕성하지는 않지만 일부나마 인터넷 서점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한 주요 인터넷 서점들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국내에서 다문화자료를 입수한 바 있는 도서관들 중에서 아직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대행사를 통한 방법이나 다른 입수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도 인터넷 서점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이용자가 희망하는 특정 자료의 구입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도서관과 같이 인터넷 서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표 7>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에 활용가능한 인터넷 서점

국가명	서점명	인터넷주소	비고	국내 배송
태국	Pink Lemon	http://www.pinklemon.com/	태국어, 영어	가능
태국	Buy Thai Books	http://www.buythaibooks.com	영어	가능
베트남	sachvietnam.com	http://vinamall.com/page/gen.jsp?dir=/mall/stores/sachvietnam	베트남어, 영어(미국기반 업체)	가능
베트남	Minhkhai	http://www.minhkhai.com.vn	베트남어	미확인
필리핀	National Book Store	http://www.nationalbookstore.com.ph	영어	가능
네팔	Pilgrims Book House	http://www.pilgrimsbooks.com	영어(네팔/티벳/인도/히말라야지역 자료제공)	가능
인도네시아	inibuku.com	http://www.inibuku.com	인도네시아어	미확인
방글라데시	Online Bangla Book.com	http://www.angelfire.com/electronic/banglabook	영어(미국기반 업체)	가능
스리랑카	monaree.com	https://monaree.com	영어	미확인
미얀마(버마)	foreverspace.com.mm	http://www.foreverspace.com.mm	영어(e-book 다운로드, 선불카드 이용)	다운로드
파키스탄	urducorner.com	http://www.urducorner.com	영어(우르두어, 힌디어 자료 제공)	가능
파키스탄	eMarkaz Online	http://www.emarkaz.com/shop/store/books-urdu.php	영어, 우르두어	가능
러시아	my-shop.ru	http://my-shop.ru	러시아어	미확인
러시아	eastview	http://www.eastview.com/	영어(구 소련지역 자료를 대행하는 미국업체)	가능
중국	당당서점	http://www.dangdang.com/	중국어	가능
중국	중국 아마존	http://www.amazon.cn/	중국어	가능
중국	화문서적	http://www.huawen.co.kr	한국어(국내서점)	가능

인터넷 서점 외에 위에 언급된 국내 민간영역의 도서관들이 추진했던 것처럼, 주요 이주민 국가의 출판협회나 출판사 현지서점 등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시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하거나 각 국 출판물 관련 서지도구<sup>49)</sup>를 활용하거나, 현지의 지인이 서점이나 출판사 등을 방문해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와 관련해 인터넷 서점이나 현지 서점, 출판사 등과의 직거래 방법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행사를 거치는 방법에 비해 직거래방법은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자료입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대행사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출판사나 서점을 통해 자료를 취합한 다음 다시 도서관으로 보내는데 비해 인터넷서점, 현지 서점, 출판사와의 직거래는 각 국의 자료에 대한 취합시간 없이 바로 도서관으로 배송되므로 입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셋째, 도서관 재정사정이나 주제, 언어 등에 의한 필요에 따라 소량의 도서주문과 필요한 시기에 적시 주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급 도서관들이 일정 정도의 다문화자료를 구축한 이후에 희망도서 신청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구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최근 인터넷 서점들은 해당국가에서 생산된 도서 뿐만 아니라 잡지, 음악 CD, 영화 DVD 등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해 인터넷 서점 등을 이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mazon 등의 해외 인터넷 서점은 국내와 전 세계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지만, 국내 다문화자료 관련 인터넷 서점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낮고 국내와의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지 출판사나 서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 역시 아직 국내와의 거래가 많지 않아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소규모 거래를 유지하면서 점차 그 폭을 넓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중개업자와의 접촉과 정보수집을 위해 외국 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도서전 참가나 현지출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료선정, 주문리스트 작성과 결제, 송금, 검수 등의 과정에 사서나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훼손, 주문리스트 또는 장서프로파일과의 불일치 등과 같은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국제전화요금, 우편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언어별 능통자들이 주변에 없을 경우, 그들과의 연락과 섭외, 회의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언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부 인터넷 서점은 자국어로만 제공하고 있고 현지 출판사와 서점의 경우, 현지 언어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료주문이나 자료 검수과정에서 해당언어 전공자나 한국어가 가능한

49) 외국의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의 지역학, 어문학, 다문화 관련 학술지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서평, 출판물 광고 등을 참고하고 있었다.(Roberta F. Astroff, *op.cit.*, pp.12-13.) 그 외에 국내의 지역학, 어문학, 다문화 관련 사이트의 출판사, 서점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참고할 수 있다.

해당국가 출신자 등 해당언어 능통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상당수의 인터넷 서점이 국내로 배송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인터넷 서점은 자국 내 배송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서점, 출판사 등과의 거래에서는 배송의 정확성이나 안전성, 비용, 배송기간 등을 고려해 DHL과 같은 국제적 민간 특송기업, 국제특급우편(EMS), 일반 항공우편, 선박우편 등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

### 3. 국제도서전 참가

국제도서전은 개별 도서관들이 자국 내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국가에서 출판된 자료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도서전에는 개최국의 출판사, 도소매 도서유통관계자, 서점, 저자, 저작권 관계자, 도서관 사서, 정부기구, 출판협회, 도서유통협회, 작가협회 등이 대규모로 참석하는데다, 인접국가와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전시장에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여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나 향후 구매를 위한 정보입수 등의 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도서전은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자료입수 뿐만 아니라 지역학 및 어문학 관련 자료의 입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과 사서에게 매우 가치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도서전 조직위의 협조하에 미국 ALA차원의 참관단으로 국제도서전을 방문한 사서들 대부분이 자료구입을 위해 국제도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라는 견지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angkok International Bookfair>는 태국과 인근 동남아국가들의 출판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국내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출신임을 고려할 때, 이 국제도서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51)</sup> 필리핀의 주요 출판사와 도서 유통업자들이 참여하는 <Manila International Book Fair>도 필리핀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내 도서관계가 관심을 기울일만하고<sup>52)</sup>, 말레이시아인과 중국계, 인도계 등 다문화, 다언어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개최되는 <Kuala Lumpur International Book Fair>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인도 등의 출판사와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므로 역시 국내 도서관계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sup>53)</sup> <Hong Kong International Book Fair>도 중국어권과 동

50) Barbara J. Ford, *op.cit.*, p.30.

51) 2007년에는 총 405개의 출판사와 유통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362개 태국 출판사 외에 18개국 43개 출판사와 유통업체들도 참여하였다. 주요 참여국가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한국, 미국 등이었다. Bangkok International Bookfair Home page, <<http://www.bangkokibf.com/figuresAndFacts.php>> [cited 2008. 6.20].

52) Manila International Book Fair Home page, <<http://www.manilabookfair.com/index.html>> [cited 2008. 7. 3].

53) Kuala Lumpur International Book Fair Home page, <<http://klbookfair.com>> [cited 2008. 7. 3].

남아권에서 출판된 자료를 입수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sup>54)</sup> 세계 2위의 출판시장인 일본에서 매년 개최되는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는 주로 일본, 북미, 유럽의 출판사 등이 주축을 이루지만 국내 도서관이 관심을 가질만한 아시아 국가의 주요 출판업체 등도 여럿 참여하고 있다.<sup>55)</sup> 2006년 세계 50개국 1,189개 출판사 등의 업체가 참여하여 아시아 출판허브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의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와 2006년 대만을 비롯한 중국어권 등 세계 41개국 885개의 출판사가 참여한 <Taipei International Book Exhibition>는 중국어권 자료와 인근 아시아 지역 자료입수에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6)</sup><sup>57)</sup><sup>58)</sup><sup>59)</sup> 끝으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울 국제도서전>에는 2008년 29개국 675개의 출판사, 유통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아직 다른 세계적인 국제도서전에 비해 외국 관계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열리고 아시아 지역의 출판사, 출판협회, 정부부처 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고려할만하다.<sup>60)</sup><sup>61)</sup><sup>62)</sup>

다문화자료 입수와 관련해 국제도서전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국가의 출판물들을 직접 접할 수 있고, 관심국가의 출판물 생산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둘째, 국제도서전에서 직접 자료구입이 어려울 경우, 참가한 출판사나

- 
- 54) 2008년에는 약 480여 관련업체가 참여하였는데, 홍콩 이외 중국, 대만 등의 중국어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권, 그리고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Hong Kong International Book Fair Home page, <<http://exlist.hktdc.com/index.aspx?ccode=BOOKOEP>> [cited 2008. 6. 20].
- 55) 2008년에는 세계 30개국에서 약 770개 전시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일본, 미국, 유럽 이외에도 Philippine Educ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필리핀), Northern Pilgrim Publishing House LTD.(러시아), National Book Foundation(파키스탄), China Universal Press and Publication Co., LTD.(중국), Books from Bangladesh(방글라데시), The Publishers and Booksellers Association of Thailand(태국), Xunhasaba Corp.(베트남), Samudra Publishing(스리랑카) 등의 국내 주요 이주민 출신 국가의 출판협회와 도서유통업 협회, 개별 출판사 등이 참여하였다.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Home page, <[https://secure.shanon.co.jp/find\\_tibf2008/tibf/en](https://secure.shanon.co.jp/find_tibf2008/tibf/en)> [cited 2008. 6.15].
- 56)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Home page, <<http://www.bibf.net/news/10001/10124>> [cited 2008. 6. 14].
- 57) Taipei International Book Exhibition Home page, <<http://www.tibe.org.tw/tibe07/index.php?language=en>> [cited 2008. 7. 3].
- 58) 최아람, “중국정부 베이징 국제도서전의 세계화에 앞장,” 출판문화, 제43권, 제10호(2006), pp.6-9.
- 59) 이 외에도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전인 독일의 <Frankfurt Book Fair>와 2008년 69개국이 참가한 세계 최대의 아동도서전인 이탈리아의 <Bologna Children’s Book Fair>는 세계 각 국의 다양한 출판사와 유통업체 등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60) 서울 국제도서전 홈페이지, <<http://www.sibf.or.kr>> [인용 2008. 7. 1]. 대한출판협회 담당자와의 전자메일, 2008. 7. 2.
- 61) “코엑스 ‘책잔치’…14일부터 서울국제 도서전 개최”, 경향신문, 2008년 5월 12일.
- 62) 2008년 <서울 국제도서전>에는 주빈국인 중국에서 출판사 107곳과 작가협회, 출판관련 단체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고, 이 외에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싱가포르 등에서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서울도서전과 관련해 한 민간영역 도서관의 사서는 국제도서전에 참여한 현지업체의 자료를 직접 검수하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문화자료 입수에 참고하고자 서울도서전에 참여하였던 한 사서는 국내 주요 이주민 국가의 출판, 유통관계자들을 별로 없고, 영어권 어린이 자료 쪽 부스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조직위 차원에서 국내의 다문화 환경을 고려하여 이들 나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도서관유동업체 등과의 접촉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국내 귀국 뒤 직거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국제도서전이 제공하는 자료구입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영어 통역, 구입 및 결제지원, 할인제공, 출판 및 유통관계자들과의 만남 주선, 세미나 참석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sup>63)</sup> 넷째,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국내의 사서들과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하고 관련 경험이 있는 사서들로부터 상당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sup>64)</sup> 다섯째, 자료의 실물을 볼 수 있어 양질의 자료를 선정하는데 유용하다. 도서의 지질과 제본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유사주제의 자료들을 출판사별로 비교하거나 특정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나 전집, 희귀도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서평 잡지, 여러 출판사나 유통업체의 도서 목록 등 서지도구 등을 입수할 수도 있다.<sup>65)</sup>

한편, 국제도서전 참가관련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도서전 참가비용이 수반된다. 아시아 지역은 보통 4일 기준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당수 도서관은 국제도서전 참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sup>66)</sup> 국내 사서들의 참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앞의 ALA 사례처럼, 특정 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와의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사서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sup>67)</sup> 둘째, 아시아 지역 국제도서전의 경우, 대부분 영어와 현지어가 공식 지원되므로, 적어도 영어가 가능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자료구매, 정보수집, 자료발송 등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셋째, 국내 다문화자료 입수와 관련된 여러 국제도서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국가/언어의 자료와 출판사 등이 많이 등장하는 국제도서전을 사전 분석을 통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지에서 직접 다문화 관련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결제, 환율, 배송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간영역의 다문화 도서관이나 사립대학교의 도서관(지역학과 어문학 관련 자료구입) 등의 경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예산 집행의 비교적 경직되어 있고 예산과 인력문제로 해외출장이 수월하지 않은 공공도서관과 국립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도서를 현장에서 구입할 경우, 어떻게 포장하고 운송할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도서전을 다문화자료 구입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경우, 자료구입비, 출장비, 운송비 등을 대행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략이나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3) Yurong Yang Atwill & C. David Hickey, *op.cit.*, pp.97-105.

64) Elisa F. Topper, *op.cit.*, pp.183-185

65) Roberta F. Astroff, *op.cit.*, pp.11-17.

66) 국제도서전과 국제박람회 참관을 전문적으로 주선하는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 국제도서전 참관과 시내 주요 대형서점 방문 등으로 이루어진 4일짜리 코스에 참가비는 약 115만원 정도였고, 베이징 국제도서전의 참가비는 약 96만원 정도였다.

67)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여러 국제도서전에 출판 관계자들과 참가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등과 협력하여 사서들을 위한 편의제공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 도서구입 출장여행

국제도서전 외에 외국 도서관 사서들은 다문화, 지역학, 어문학 관련 자료를 더욱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현지 서점이나 출판사, 대학출판부, 유통업체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매하거나 향후 구입을 위한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는 도서구입 출장여행(buying trip 또는 acquisition trip)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여름 휴가 때 잘 마련된 패키지 형태의 여행상품이라면, 도서구입 출장여행은 여행자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배낭여행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장여행은 필요로 하는 국가의 자료를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고 귀국 후 구매를 위한 출판사와 유통업자, 서점 등과의 관계형성과 정보입수에 매우 유용하다.

도서구입 출장여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실물을 볼 수 있어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현지에서 구매하게 되므로 대행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셋째, 국제도서전과 유사하게, 현지의 서점, 출판사, 도서유통업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국내에서 직거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국가를 선택하여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시기에 국제도서전 방문과 더불어 그 지역과 인근 국가의 주요 서점이나 출판사 등을 방문하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한편, 도서구입 출장여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도서전은 도서전이 열리는 공간 내에서 관계자들을 쉽게 접촉하고 자료구입을 할 수 있지만, 도서구매 출장의 경우,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없으면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에서 사전에 방문할 국가와 업체 등을 선정하고 접촉하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므로 항공료, 체류비, 교통비 등 출장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 셋째, 국제도서전과 달리 영어 통역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을 위한 인력이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에 현지업체 등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지에서 직접 다문화 관련 자료를 구입할 경우, 국제도서전과 같이 결제, 환율, 배송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고 예산과 인력문제로 해외출장이 수월하지 않은 공공도서관과 국립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도서를 현지에서 구입할 경우, 포장과 운송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섯째, 도서구입 출장여행에 소요되는 자료구입비, 출장비, 운송비 등을 대행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략이나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5. 개별적 접촉

여기에는 도서관이나 출판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비 전문가들을 매개로 하여 도서관에 필요한

다문화자료를 입수하는 방법들이 포함된다. 이 방법들은 국내에 다문화자료를 처음으로 들여와 민간 도서관을 통해 제공했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활용하였고 현재도 활용되고 있다. 그들은 인권적 차원에서 국내 이주민들도 모국어로 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문화 자료의 입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문화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도서관과 자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이나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귀환한 이주노동자, 현지에 체류 중인 선교사나 활동가, 유학생, 지인, 관련학과 교수, 동남아 지역 여행객 등의 개인과 국내 관련국 대사관, 외국 문화원,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항공사 등 기관과 단체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다문화자료들을 입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다문화자료 입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료입수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방법이 가지는 특징적인 점은 자료관련 전문가나 전문지식이 없이도 다문화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도서관들은 전문 사서 없이도 아시아 여러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귀환 이주노동자들과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둘째, 현지인이나 현지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 서점 등을 통해 구입하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구입 예산이 부족한 민간 영역의 도서관들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들이 만만치 않다. 첫째, 앞의 여러 도서관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구입을 대행하는 사람에 의해 자료구입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구입 대리인을 찾아야 한다. 둘째, 대리인에게 언어, 주제, 이용대상, 자료형태 등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불명확한 지침으로 인해 일부 대리인은 서점 재고도서를 모아오거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사회주의 서적을 위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대리인을 위해 사전에 도서관 구입비, 배송비를 제외한 교통비, 수고비 등을 어느 정도 책정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도서관측과 잘 아는 사람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수고에 수반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남은 금액만큼 자료를 구입해 보내거나 자신의 여유시간에 구매를 하여 자료도착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전문가들이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몇 단계를 거쳐 자료구입이 진행되므로 곳곳에서 자료누락, 자료손실, 자료불일치,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여지가 있고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전화비용, 우편비용 등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다섯째, 최종 자료구입 대리인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 접촉, 주문, 자료 입수와 검수 등 전 과정에서 영어나 개별 이주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이주민 출신국가가 다양하고 나라별로 언어가 다양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다양한 언어별로 능통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나 관공

서, 대학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이주민 중에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한 사람들과 아시아 주요 언어와 러시아어 등 관련 학문 전공자 등을 추천받아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국내 이주민 인구가 115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민간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 개별 도서관들이 기존의 비체계적인 다문화자료 입수방법을 넘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국내에도 다문화자료의 유통을 수행하는 도서 대행사가 등장하였고 이 대행사를 통해 다문화자료를 입수하는 공공도서관이 생겨나고 있는 한편, 민간 도서관들도 기존의 민간 도서관들이 보였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속도에 비해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입수와 이를 토대로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 더딘 상태이다. 앞으로 개별 도서관들은 기존의 소극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대행사, 인터넷 서점, 국제도서전, 도서구입 출장여행, 개별 접촉 등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문화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들은 다양한 외부자원과의 연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선정, 주문, 검수, 클레임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를 도와줄 국내거주 이주민 또는 아시아권 언어 전공자<sup>68)</sup>, 앞선 자료입수 경험을 전수해 줄 타 도서관의 사서나 활동가, 도서관의 수이자 향후 든든한 후원자가 될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민 자료입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기업,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은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도서관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와 도서관 현장의 활발한 학문적, 직업적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학계와 현장의 다문화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8) 북미 등 다문화사회나 지역학, 어문학 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외국 도서관들은 효과적인 자료입수와 서비스제공을 위해 소수민족이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도서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는 "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나 각 국 도서관협회의 다문화 관련 지침에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아직 국내 도서관들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정규직원 채용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도서관측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이점을 생각한다면 시간제 근로나 자원봉사자로의 활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관들이 다문화자료를 효과적으로 입수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다문화자료 입수에 상당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별 공공도서관이나 민간영역의 도서관들에게만 어려운 자료입수 과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이다. 향후 국가적 차원이나 도서관 관련 전문직 단체, 관종별 협의체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기반의 자료입수와 같은 조직적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자료 입수 이후 도서관들이 다국어 기반의 목록 구축 방안이나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